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첫만남 인사	인사나누기/국립공원소개	안녕하세요. 오늘하루 여러분과 함께'버스타고 신라로'떠나게 될 경주국립공원 ***입니다. 여러분 국립공원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자연생태나 문화경관이 뛰어나 국가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자연공원을 바로 국립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수도였던 만큼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문화역사자원이 뛰어나 22개 국립공원 중 유일하게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가 바로 경주국립공원이 지정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생태관광에 참가하게 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 경주국립공원은 총 8개의 지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소금강지구, 화랑지구, 남산지구, 서악지구, 대본지구, 토함산지구, 구미산지구, 단석산지구가 있습니다.
소금강지구	소금강지구 / 석탈해왕릉	먼저 우리가 처음 모인 이곳은 경주국립공원 소금강지구입니다. 소금? 소금이 있어서 소금강산이라 불렀을까요? 신라시대에는 금강산이라고 불렀던 기록이 있지만 일제강점이후 강원도의 금강산과 구분하기 위해 작을 소 (小)를 앞에 넣어 소금강산 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작지만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이겠죠? (신라의 오악 중 하나) 소금강산은 신라의 북쪽에 위치한 산으로 북쪽을 수호하고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서 회의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경주시내의 경치와 함께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아름다운 산으로 예로부터 문인과 시객이 즐겨 찾는 곳이였다고 합니다. 오래된 숲인 만큼 왕릉주변으로는 소나무가 많지만 소금강지구에는 키가 큰 활엽수, 그 중에서도 참나무가 많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소금강지구에서도 바로 이곳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는'탈해왕릉'입니다. 탈해왕의 이름은 석탈해 인데요. 옛날 다파나국이라는 나라에서 왕이 왕비를 맞이해 임신7년 만에 큰 알을 낳자 왕은 좋지 못한 일이라며 바다에 버리게 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알을 비단에 싸고 궤짝에 넣어서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그 알이 동해앞바다 까지 다닿아 한 어부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 스스로 알을 깨고 상자를 풀고 나왔다고 하여'탈해'라고 이름 지어졌고 석씨의 시조이자 신라의 4번째 왕이 되었답니다. 석탈해왕릉 동남쪽에는 탈해왕을 제향하는(제사를 지내는) 숭신전을 보실 수 있는데요. 1980년에 월성에서 현재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백률사	탈해왕릉에서 멀지않은 곳, 소금강산 기슭에는 백률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절의 창건 년대은 알 수 없으나 백률사라 불려 지기 전에는'자추사'라고 불려졌다고해요. 불교를 구심점으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법흥왕에게 신하들이 거센 반대를 하자 이차돈이 나서서"비상한 사람이 있고서야 비상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라고하며 자신의 목을 베어 사람의 반대를 잠재우도록 먼저 왕에게 청했고, 이에 왕은 이차돈의 목을 베었는데 피 대신 흰 젖이 한 길이나 솟구치고, 천지가 침침해졌으며 땅이 진동하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소금강지구	백률사	이 후 사람들은 불교전파에 반대하지 못했고 하늘로 솟구쳤던 이차돈의 목이 소금강산의 중턱에 떨어져 법흥왕이 이차돈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소금강산에 절을 세우도록 한 것이 백률사입니다.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차돈과 함께 백률사는 신라 불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지이기도 합니다. 신라는 이 후 나라의 모양새가 갖추어지면서 본격적인 전성기에 들어섰는데요. 신라의 탄생과 시작을 함께한 이 곳 소금강지구를 기억하며 우리의 첫걸음을 힘차게 걸어볼까요?
구미산지구	용담정	(소금강지구에서 구미산지구로 가는 버스 안) 지금까지 신라의 탄생, 시작 이야기를 들려 드렸습니다. 보통 경주, 신라하면 불국사와 석굴암 같이 불교를 많이 생각하실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으로 가게 될 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종교인 동학의 발상지인 '용담정'입니다. 용담정의 위치한 곳이 바로 경주국립공원의 구미산지구 인데요. 산이 거북의 꼬리모양이라고 하여 구미산이라고 불려집니다. 동학,천도교는 창시 당시 가난하고 핍박받은 사람들에게서 '신분 평등'을 주장하여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천도교(동학)을 창시한 최재우가 태어나고 동학을 포교하다 뼈를 묻은 곳이 바로 구미산의 용담정입니다. 구미산기슭 넓은 땅에 민족종교인 동학의 발상지라 하여 1975년에 성역화작업을 통해 천도교 수련시설로 정비되었고 현재까지 천도교의 성지이자 그의 정신을 추모하는 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최재우_경주최씨, 6부촌)
서악지구	무열왕릉	(구미산지구에서 서악지구로 가는 버스 안) 소금강지구에서 신라의 시작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 곳은 신라의 성장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경주국립공원 서악지구 태종무열왕릉입니다. 여러분 무열왕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김춘추입니다. 김춘추는 몰락한 성골집안의 자손으로 신라삼국통일의 주역이기도 하죠. 김춘추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의 있습니다. 바로 김유신과 함께 신라통일의 기반을 닦으며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 김유신입니다. 서악지구와 가까운 경주국립공원 화랑지구에는 김유신장군묘가 있습니다. 김유신과 김춘추는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김유신과 김춘추는 함께 축국(오늘날의 축구)을 하던 중 옷이 찢어져 김유신의 누이동생인 문희가 그 옷을 고쳐주게 되었고 김춘추와 혼인까지 하게 되어 훗날 김유신의 동생은 문명왕후로 왕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게 될 서악지구의 무열왕릉에 태종무열왕릉 뒤로 큰 4기의 무덤이 있는데요. 이건 무열왕과 가까웠던 4명의 왕족들이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무열왕릉 앞에는 국보로 지정된 무열왕릉비가 있는 데 이 비석에는 '태종무열왕지비'라고 조각되어 있어 이로 인해 신라의 왕릉 중 묻혀있는 사람(피장자)이 명확한 유일한 무덤이라고 해요. 비석에 새겨진 '태종무열왕지비'라는 글자는 무열왕의 둘째아들인 '김인문'의 글씨라고 전해져오고있습니다.

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단석산 지구	단석산지구/신선암 마애불상군	(남산으로 가는 버스 안)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산이 바로 경주국립공원의 단석산 입니다. 단석산 이라는 이름은 김유신이 17살 되던 해에 삼국통일을 이루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홀로 단석산을 찾아 수련하고 있을 때 도승을 만나, 보검(칼)을 얻은 뒤 옆에 있던 바위를 두부 쪼개듯 두 쪽으로 갈라놓았다고 하여 단석산 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단석산은 '경주의 지붕' 이라고 할 정도로 경주 일대에서는 가장 높은 산으로 우람한 산세가 일품이며 봄에는 능선에 핀 진달래를 감상하기 위해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단석산에는 신선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국보 제199호로 지정되어있는 마애불상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대체) '마애'는 벼랑을 깎아 만든 불상이라는 뜻으로 단석산 중턱의 '상인암' 이라는 바위에 불상이 새겨져 있는데, ㄷ자 형의 석굴모양에 지붕이 있으며 바위의 안쪽 벽면을 보면 10구의 불상과 인물상이 새겨져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석굴은 우리나라 석굴사원의 형식을 보여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클 뿐만 아니라, 당시 신앙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남산지구	남산	(남산으로 가는 버스 안) 지금까지 신라의 시작인 소금강지구부터 성장과 삼국통일까지 둘러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우리가 가게 될 곳은 바로 경주국립공원의 남산지구입니다. 남산은 산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있으며, 곳곳에 탑과 절터가 많이 남아있어 지붕이 없는 노천박물관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남산에는 신라의 시조, 첫 번째 왕인 박혁거세가 태어난 나정이 있고, 신라의 멸망을 예고하던 포석정이 있는 곳이기도 하여 신라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라인의 정신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남산. 우리는 이제 남산에서도 서쪽에 있는 삼릉으로 가겠습니다.
	삼릉	여러분은 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에 오셨습니다. 경주 남산은 신라시대 때 왕이 계셨던 월성의 남쪽에 있다하여 남산이라 부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산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큰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듯 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금오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몇 개의 릉이 보이시나요? -이곳은 3개의 릉이 있어서 삼릉이라고 부른답니다. 신라는 시조와 박혁거세부터 마지막 왕인 경순왕까지 56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제일 앞쪽에는 54대 경명왕, 가운데 53대 신덕왕, 뒤쪽이 8대 아달라왕의 능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무덤들은 원래 봉분 둘레에 호석을 쌓고 큰 자연암석을 둘러놓은 형태로 태종무열왕릉의 무덤과 같은 모양이였는데 지금은 대부분 파괴되어 원형토분의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가운데있는 신덕왕릉은 두 차례에 걸쳐서 도굴을 당했는데 무덤의 내부는 돌로 방을 만들고 석회를 두껍게 발라 오방색으로 채색을 한 흔적이 있어 이를 통해 석실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릉, 총, 묘, 고분의 차이)
	소나무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나무의 이름은 뭘까요? 이곳 삼릉은 소나무들이 큰 키로 우거져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온 다음날이나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면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운 숲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멋진 소나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해요. 소나무는 경주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깃대종이기도 합니다. 깃대종이란 그 지역의 문화, 지리, 생태를 대표하는 생물종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22개의 국립공원에는 모두 식물 깃대종과 동물 깃대종이 각 각 하나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주국립공원은 원앙과 바로 이 소나무가 깃대종으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남산지구	소나무	숨을 한번 크게 들이셔보세요. 다른 숲에서는 맡아볼 수 없는 소나무 숲 특유의 향긋한 향이 느껴지시나요? 침엽수, 특히 소나무에는 피톤치드라고 부르는 천연 향균물질이 많이 나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긴장이 완화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도 호흡에 집중하셔서 좋은 소나무향을 몸 속 가득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토함산지구	골굴사	경주, 석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경주의 상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석굴암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석굴암은 경주국립공원의 8개 지구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토함산 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곳 토함산 지구에는 석굴암 말고도 신라불교미술의 진가를 엿볼 수 있는 숨은 보물 같은 자연석굴사원이 있습니다. 바로 골굴사의 석굴사원입니다. 석굴암은 인공 석굴로 골굴사는 자연석굴로서. 불교미술양식 중 간다라 양식을 띄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양식은 저 멀리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경주에서 까지 볼 수 있는 석굴사원의 형태입니다. 굴굴사 마애여래불은 보물 58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응회암 절벽을 깎아 만든 것으로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으며 총12개의 석굴이 있고 천진한 모습을 하고 있는 동자승부터 위엄 넘치는 노스님 까지 여러 형태의 불상이 모셔져 있으며,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마애여래불은 풍화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위해 투명비닐 보호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굴사는 선무도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선무도는 인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불교수행법 중 하나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가나 명상을 아우르는 수행법인데요. 불교의 호국사상에 이어 신라의 화랑도에 까지 영향을 끼친 수행법입니다. 골굴사에는 선무도를 수련하는 템플스테이를 참여할 수 있는데 한국인보다도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져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본지구	문무대왕릉	다음으로 우리가 향할 곳은 문무대왕릉입니다. 문무왕은 우리가 오전에 갔었던 태종무열왕릉의 무열왕과 김유신의 누이동생 문희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로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신라의 30대 왕입니다. 문무대왕의 릉은 바다 한 가운데서 볼 수 있는데요. 문무대왕릉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수중릉의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죽어서도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 왜구의 침입을 막아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대왕을 뜻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불교식으로 화장을 한 뒤 커다란 바위아래 유골을 넣고 장사를 지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파식적이라는 신라의 전설 속의 피리를 아시나요? 바다의 용이 된 문무왕과 하늘의 신이 된 김유신이 동해의 한 섬에 대나무를 내려주었는데 그 대나무로 피리를 불면 적군들이 물러나고, 병이 낫고, 바다의 물결이 잔잔해지며 나라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죽어서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주던 문무왕과 김유신의 호국정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감은사지	문무왕은 불력으로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동해바다에 절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절이 완공되기 전 문무왕은 위독해져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아들인 신문왕이 아버지인 문무왕의 뜻을 이어 절을 완공하여 감동할 감, 은혜 은자를 써서 감은사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감은사의 법당(금당)아래에는 용이 된 문무왕이 드나들 수 있도록 동해를 향해 구멍을 뚫어 놓기도 했는데요. 이 곳에는 지금 절의 모습은 남아 있지 않지만 쌍둥이처럼 동쪽과 서쪽에 두 탑만 남아있으며 국보11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석탑 중에서는 가장 큰 크기이며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제	세 부 시 나 리 오	
	마무리	국립공원과 함께 버스타고 신라로 떠난 오늘하루 여러분 어떠셨나요? 처음 신라의 시작이 된 소금강지구부터, 천도교의 발상지인 구미산지구, 신라의 성장을 볼 수 있었던 화랑, 서악, 단석산 지구, 신라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었던 남산지구와 신라의 불교미술을 볼 수 있었던 토함산 지구, 그리고 마지막 신라의 삼국통일과 신라인의 호국정신을 볼 수 있었던 대본지구 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버스타고 경주국립공원의 8개 지구를 돌면서 시간의 순서대로 신라의 흐름 따라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경주국립공원 속의 역사를 따라 둘러보셨지만 다음에 국립공원에 오시면 역사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속의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소중한 생물들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의 레인저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한 분 한 분 국립공원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주변 분들께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그리고 경주국립공원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메신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국립공원 50주년을 축하하는 박수를 다 같이 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주국립공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